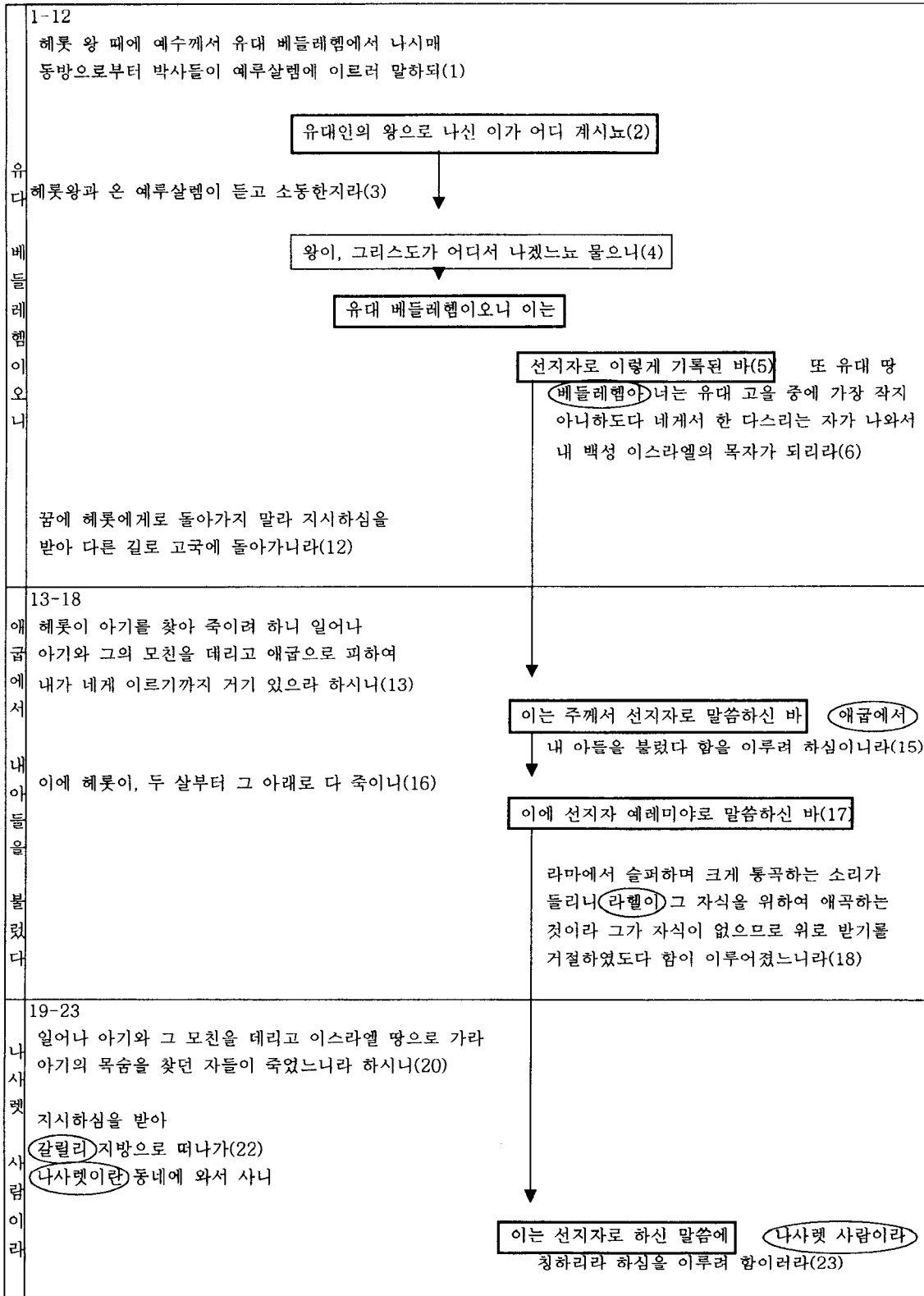


마태복음 2장 개관도표

주제 :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신 것의 성취



마태복음 2장,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신 것의 성취

요절 : 5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2장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네 번(5, 15, 17, 23)이나 나옵니다. 내용은 동방 박사들의 등장, 아기 예수의 애굽으로 피신, 헤롯의 영아 살해, 나사렛으로 귀환 등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점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하심”(15, 18, 23)에 있습니다. 마태가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한 의도는 이것들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음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점은 말씀의 성취가 단순한 문자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를 간과하게 되면 마태가 성경을 잘못 인용한 양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2)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둘째 단원(13-18)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셋째 단원(19-23)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첫째 단원(1-12)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1).

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2), 박사들이 어느 나라 누구들인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하려는 핵심이 “별도, 박사들”도 아니라 그들이 경배하러 온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발람”을 연상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던 자, 옆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민 24:15-17) 하고, “왕과 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때의 일이 아니며” 하고,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눈을 뜬 자만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②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3) 합니다. 이 소동은 표면적인 소동(騷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면적(裏面的)으로는 4장에 등장하는 사탄이 소동하여 비상상태에 들어갔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③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뇨 물으니”(4), 우리가 이 귀절에 관심 하게 됨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사명과 책임 때문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헤롯도 이들을 소집하여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바로 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④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5) 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미 5:2)을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증거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은 이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을 맡은 자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헤롯왕의 반응을 주목하게 합니다.

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7) 것은, 태어난 “시기”를 알기 위해서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8) 한 것은, 태어난 “장소”를 알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⑥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12) 합니다. 이 대목을 접근할 때에 경계해야 할 점은 우리의 눈을 “박사, 별, 황금” 등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현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들러리가 되고 무색(無色)해지고 맙니다. 강조점을,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박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러 온 것뿐입니다.

⑦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으리라고 여기고 왕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기관들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이 아니라, 선지자로 기록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로 미리 예언케 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좇아 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것은 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별은 몽학선생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⑧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했던 변화상상의 영광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벘 후 1:19) 합니다. 별을 찾기 위해 하늘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별은 형제의 마음의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13-18)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13).

① 본 단원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한 것이고, 둘째는 헤롯이 베들레헴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이 “성취”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는데 있습니다.

② 먼저 애굽으로 피신한 일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15) 합니다. 이는 호세아 11:1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문맥으로 보면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잘못 인용을 했던 말인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구속사라는 더 넓은 문맥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면(場面)이 어떻게 겹쳐지고 있는가? ㉡ 아기 예수를 죽이

려는 헤롯은,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와 겹쳐지고 있고, ㉔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영적 출애굽과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③ 이런 패턴은 3장의 “세레”가 홍해도하 사건과 겹쳐지고, 4장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으심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함과 겹쳐지고, 5장의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과 겹쳐지는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시(遠視)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① 다음은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죽였다”(16)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의 성취란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②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18) 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31:15절의 인용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문맥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라헬이 울고 있는 양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렘 31:16) 하고 위로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③ 라헬은, 레아가 네 명의 아들(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을 생산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내가 죽겠노라”(창 30:1) 하고 말할 정도로 아픈 마음을 맛본 여인입니다. 그러던 그가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를 “베들레헬 길에 장사”(창 35:19)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묘실에 대한 언급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삼상 10:2) 한 언급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라헬은 “슬픔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라, 리브가, 레아” 등은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막벨라 묘실에 장례 되었으나(창 49:31), 유독 라헬만은 베들레헬 “길가”에 장사한 바 되었다는 것은 그를 더욱 슬픔의 어머니로 여기게 합니다.

④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렘 31:15)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슬픔을, “슬픔의 어머니”가 자손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인 양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혹자는 포로로 끌려갈 때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⑤ 포로로 끌려가던 때부터 5백년이 지난 이제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헬”에서는 “슬픔의 어머니”들의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이는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식들을 인한 애곡입니다. 마태는 라헬의 연유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떡끄떡했을 것입니다.

셋째 단원(19-23)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23).

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19-20).

② 요셉은 처음에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두려워하던 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22-23상) 합니다.

③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23하) 합니다. 이를 문자적인 의미로 여기고 선지서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사렛 사람”이란 “경멸과, 멸시”를 의미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5-46)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④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었으나, 죽이려는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와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요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사 9:1). 그리스도는 “고통을 받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하여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멸시를 당하고 낮아질 곳이란 없는, “나사렛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